

3. 1/4분기 經濟成長의 內容 및 特徵

- (經濟成長 內容)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9.9%. 경제성장은 생산 측면에서는 製造業과 서비스업이, 수요 측면에서는 輸出과 投資가 주도
- (景氣 特徵) 최근의 경기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경기양극화, 貿易收支 악화, 中小企業의 인력난 및 자금난 심화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景氣 展望) 현재의 경기활황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

○ (經濟成長 內容)

- 올해 1/4분기중 우리 경제는 91년 2/4분기(10.6%) 이후 가장 높은 9.9%의 經濟成長率을 기록
- 産業別로는 제조업(12.9%)과 서비스업(10.6%)의 성장률이 두드러졌으며, 建設業(7.8%)도 공공부문의 토목건설과 비주거용건물 건설(工場 및 商街) 등의 호조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需要面에서는 수출(23.8%)과 투자(15.6%)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민간소비(8.7%)는 지난해 4/4분기(7.8%)보다 증가율이 높아졌음

○ (政府의 景氣 對策)

- 정부는 1/4분기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관련, 별도의 景氣 安定 對策은 강구하지 않겠다고 발표
 - 이는 무리하게 경기 안정책을 펼 경우 경공업 부문과 中小企業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
 - 그러나 大企業에 대한 시설투자 자제 요청, 외화대출 축소 등 현재 진행중인 경기 안정 대책은 계속 추진될 것임
- 경기 안정과 관련하여 통화의 안정적 운영과 원貨 切上은 계속 이루어질 전망
 - 재경원에서는 내부적으로 金利는 3/4분기까지 15-16% 선, 원貨 換率은 730원 선까지 용인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매일경제신문」 5월 25일 보도)

○ (최근 景氣의 特徵)

-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 제조업의 經濟成長 寄與度는 93년의 25.4%에서 94년에는 35.8%로, 그리고 올해 1/4분기에는 39.7%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음
 - 제조업 성장은 輸出 및 設備投資의 높은 증가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경기양극화
 - 重化學工業은 지난해 13.4% 성장한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는 88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16.4%의 성장률을 기록

- 반면 輕工業은 92년과 93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94년의 성장률이 3.6%에 그쳤고, 올해 1/4분기에는 2.8%로 오히려 하락하였음
- 경기양극화의 원인은 産業構造 조정이라는 구조적 요인, 엔高의 수출 증대 효과가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되고 경공업 부문에는 오히려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원高 진행에 따라 특히 경공업 부문에서 價格競爭力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 貿易收支 악화
 - 올해 1월-4월의 貿易收支(통관기준) 적자는 5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억 달러나 증가하였음
 - 통상 2-3개월 후의 輸入 추이를 예고하는 수입승인액(I/L)이 최근(4월-5월) 사상 최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출신용장(L/C) 내도액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貿易收支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貿易收支 악화에는 자본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輸入 物量의 급증뿐만 아니라, 엔高 및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輸入 單價의 상승도 큰 몫을 하고 있음 (4월중 輸入物價는 전년동기대비 11.3%나 증가하여 94년의 4.0%를 크게 넘어서고 있음)
- 中小企業의 인력난 및 자금난
 - 경기 상승이 가속화되고 경기양극화가 심화되면서 中小企業을 중심으로 인력난과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
 - 1/4분기중 失業率은 2.1%(계절조정치)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을 보이고 있음. 人力不足率은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생산직 부문에서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1/4분기중 어음부도율은 0.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景氣 展望)

-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 제조업 가동률이 1/4분기중 83.5%로 매우 높으며, 民間 消費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景氣 過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물가 상승을 초래할 만큼 消費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 아니고, 物價도 지난해에 비해 안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設備投資 급증이 점차 생산 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등은 景氣 過熱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들임
- 현재의 경기활황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엔高에 따른 輸出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약 6개월 후의 경기를 예고하는 景氣先行指數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 부진했던 建設 景氣가 되살아나면서 경기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이 영 수)